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IT로 빛어낸 미래 도서관 '흥미롭네'

전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이자 배움의 장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식정보 사회의 역동적 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5,000여명의 도서관인들이 몰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토로하고 교환하는 등 정보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혜성 기자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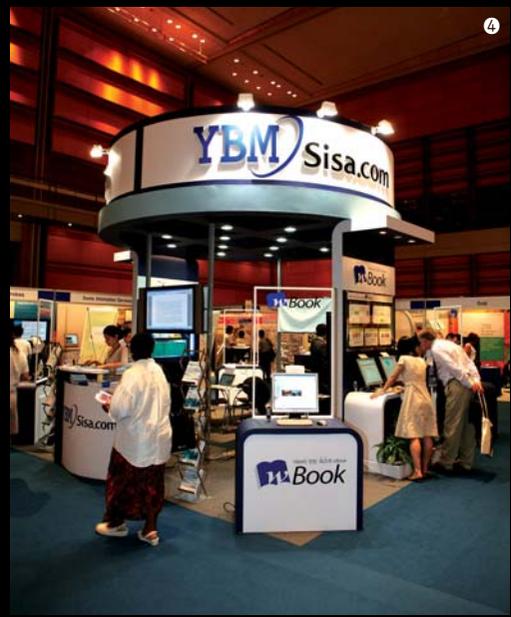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의 연차대회로 지난 2003년부터 IFLA대회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72회째를 맞는 이

번 대회는 '도서관: 지식정보 사회의 역동적 엔진'이란 주제로 전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1999년 8월 방콕대회에서 서울이 2006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7년 간 도서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성공리에 치러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공식 개막 행사에는 명예 위원장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 김대중 전 대통령, 신기남 조직위원장,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알렉스 빈 IFLA 회장, 클라우디아 룩스 차기 회장 등이 참석, 세계 도서관정보대회의 서울 개최를 축하했다.

권양숙 여사는 축사에서 "최근 3년 간 한국은 3,800여개의 학교도서관과 9개의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했고, 지난 6월에는 국립어린이



① 해외 도서관 관련 단체 및 SW기업들을 통해 전세계 도서관 정보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② 3M의 RFID 도서관 시스템
 ③ 외국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들의 SW에 상당한 관심을 표시. 수출 상담도 활발히 오갔다.
 ④ 국내 대표적 교육 콘텐츠 기업인 YBM사닷컴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⑤ 20일부터 다음 달을 동안 도서관 정보화 관련 150여 SW 업체들이 미래 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⑥ 전자책 전문기업 북토피아는 'u라이브러리' 솔루션을 전시했다.

이청소년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며 "한국은 도서관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실질적인 회의활동은 지난달 18일 IFLA 이사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공식 회의기간에는 총 215개의 각종 회의와 학술 발표가 개최됐다.

특히 지난달 23~24일 양일간 약 1,500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도서관 등 9개 대학도서관, 과천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 김대중 도서관 등 총 37개 주요 도서관을 방문하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화 수준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편 20~23일까지 코엑스 컨벤션홀에서는 각국 주요 도서관 및 도서관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등 150여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개최되어 각국의 도서관

최신 현황과 도서관 정보화를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RFID를 도입한 솔루션을 선보였는데, 향후 RFID가 도서관 정보화의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3M은 도서관 대출·반납 자동화 시스템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책마다 RFID칩이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의 ID 카드 인식만으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 이를 통해 단순 업무에 투입되던 기존 인력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장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 국내업체인 나이콤도 도서·비디오·DVD 등 모든 종류의 도서관 자료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자료를 인식하고 추적하여 서고정리, 장서점검, 통계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전시했다.

전자책 전문기업 북토피아도 이번 전시회

최고 인기 부스 중의 하나였다. 북토피아는 'u라이브러리'를 소개하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도서관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u라이브러리는 유선인터넷 환경에서만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 e라이브러리와는 달리 유무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도서관 솔루션. 이용자는 한번의 대출로 PC, PDA는 물론이고 휴대 전화를 통해서 동일한 책을 볼 수 있다. 특히 u라이브러리는 e북 외에도 VOD, e러닝 콘텐츠, 웹DB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연동이 가능하다.

한편, 퓨처인포넷은 기존 도서관자동화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최첨단 학술정보포털 시스템을 전시했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IT와 도서관이 융합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형 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했다. ●